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장
yoonyj@kiep.go.kr

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부연구위원
swhong@kiep.go.kr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선임연구원
jokim@kiep.go.kr

김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hkim@kiep.go.kr

남지민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jmnam20@mofa.go.kr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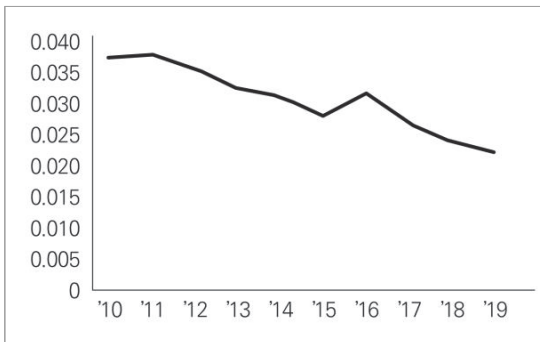
- ▶ 본 보고서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
- ▶ [한-MERCOSUR TA]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
 - 본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타결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MERCOSUR 측에서는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 ▶ [한-PA 협상] 태평양동맹국들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PA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 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
- ▶ PA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내 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
 -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국가들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지는 상황
- ▶ 한-MERCOSUR 무역협정과 한국-브라질 양자간 무역협정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특히 MERCOSUR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 자체가 지연될 경우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의 가능성 모색도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MERCOSUR와 무역협정(TA)을, PA와는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MERCOSUR의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PA의 회원국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
 - 한국이 중남미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MERCOSUR와 PA 협상은 진정한 중남미 시장과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당면과제
- 한편 MERCOSUR와 PA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손실된 시장점유율의 만회를 위해서라도 MERCOSUR 및 PA와의 무역협정 체결은 중요

그림 1. MERCOSUR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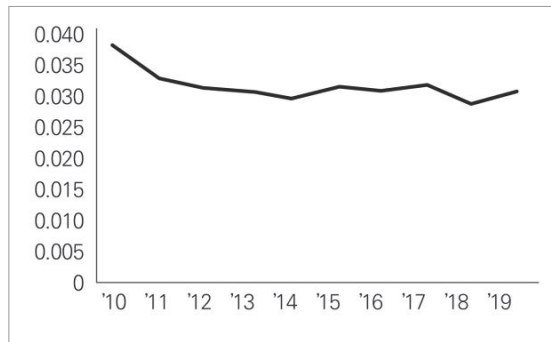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 Data Base(검색일: 2020. 9. 15).

그림 2. PA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

(단위: %)



자료: UN Comtrade Data Base(검색일: 2020. 9. 15).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보고서는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연구를 실시
 - MERCOSUR와 PA의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인 동시에 협상 타결 후 이들과 원활한 교류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는 △MERCOSUR와 PA가 협상 중인 무역협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회원국 간의 갈등 사례 △무역, 투자, 역내공급망 관련 통합지수 등을 살펴봄으로써 역내외 통합에 대한 이해 제고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MERCOSUR의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 분석

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갈등 사례

● MERCOSUR의 역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갈등해소의 반복으로 점철

-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물론 자유무역협정인지도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양국간의 협력과 통합은 실망스러운 수준
- 대표적인 예로 일관적이지 못한 반덤핑 정책
 - 브라질의 가장 빈번한 조사 대상국은 EU인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브라질(표 1 참고)
 - 즉 아르헨티나는 같은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

표 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조사대상국(1995~200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21 (23%)	브라질	28 (19%)
중국	11 (12%)	중국	28 (19%)
미국	11 (12%)	EU	27 (18%)
칠레	3 (3%)	남아공	9 (6%)
일본	3 (3%)	한국	8 (5%)
한국	3 (3%)	미국	8 (5%)
루마니아	3 (3%)	칠레	6 (4%)
베네수엘라	3 (3%)	대만	6 (4%)
남아공	3 (3%)	체코	2 (1%)
아르헨티나	2 (2%)	인도네시아	2 (1%)
총	90 (100%)	총	148 (100%)

자료: Bown and Tovar(2016).

● MERCOSUR 출범 이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 주요 통상갈등은 △1995년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 수량 제한 △1999년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산 신발에 대한 비관세장벽 조치 △2001년 아르헨티나의 일방적 역외관세율 변경 등을 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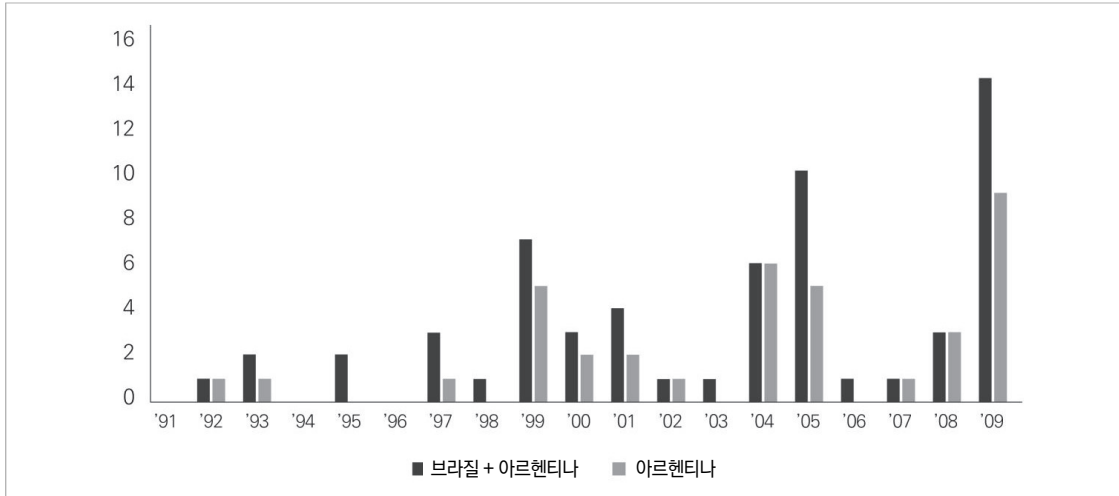
- 1995년 갈등은 브라질의 새로운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MERCOSUR 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입에 대한 수입물량 제한조치에 의해 촉발
 - 아르헨티나는 이에 대한 항의로 MERCOSUR 사무국에 주재하고 있던 자국 외교관들을 철수하고 MERCOSUR 정상회담을 보이콧하겠다고 위협

-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받아들이는 대신 역내 자동차시장 통합 및 관세동맹 설립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갈등을 매듭지음.¹⁾
- 1999년 갈등은 동년 1월 단행된 브라질 헤알(real)화 평가절하에서 비롯됨.
 - 평가절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브라질의 대(對)아르헨티나 수출이 크게 증가
 -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발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신발류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신설
 - 브라질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400여 개의 아르헨티나 수입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부활하였고 아르헨티나 농산물 수입에 대한 검역 강화
 - 정부 차원의 대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양국의 신발산업협회 대표들이 문제해결에 나서 아르헨티나는 수입허가 과정을 단순화하는 대신 브라질은 보복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
- 2001년 갈등은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으로 역외관세율을 조정하여 관세동맹으로서 MERCOSUR의 공통역외관세 원칙을 위반하면서 촉발
 - 당시 경제위기를 겪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700여 개 수입품에 대한 역외관세율을 최대 35%까지 독단적으로 인상
 - 이에 대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독자적 역외관세율 변경을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하며 갈등은 일단락
- 앞서 논의한 3건의 갈등 중 2건은 양국의 경제위기에서 비롯
 - 1999년의 갈등은 브라질 헤알화 평가절하, 2001년의 갈등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그 시점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2019년 다시 한 번 경제위기를 경험한 아르헨티나가 MERCOSUR가 진행하고 있던 무역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돌연 선언함으로써 역내통합을 저해시킨 일은 역사의 반복으로 볼 수 있음.
- 상기 사례들 외에도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의 일방적 통상정책(상호간 쿼터, 관세, 반덤핑관세, 수입허가제 등)은 1991~2009년 기간 중 총 60건에 달함.
 - 총 60건 중 아르헨티나에 의해 촉발된 사례는 37건, 브라질에 의해 촉발된 사례는 23건(그림 3 참고)

1) 양국은 2019년에 비로소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 내용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2029년에 완전한 자유화에 이르는 것이다.

그림 3.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상호간 무역제재 조치

(단위: 건수)



자료: Gomez-Mera(2013).

② MERCOSUR-EU 무역협정

- MERCOSUR-EU FTA는 20여 년이라는 FTA 사상 유례 없는 최장기 협상의 산물인 동시에 협상 타결 이후 비준 및 발효에 이르는 기간도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례
- 제조업과 농업이라는 경쟁 우위 부문이 선명한 선진권-개도권 간의 전형적인 무역협정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유사한 통상관계에 있는 국가가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참고해야 할 주요 사례
-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 의제에서 선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EU의 입장이 다수 반영된 FTA라는 특징
 - EU는 비준 관련 '지속가능 규정 장(章)'을 FTA에 새로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환경 이슈는 MERCOSUR-EU FTA의 비준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MERCOSUR는 제조업, 특히 자동차산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반면, 농업부문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됨.
 - 자동차 부문은 10~15년간 점진적으로 개방되는데, 승용차 관세는 발효 후 6년간 기본관세를 유지하다가 7년차부터 선형적으로 감축하여 15년에 완전 철폐
 - 아르헨티나 자동차업계는 MERCOSUR(기본관세 35%)보다 낮은 EU(10%)의 수입관세가 야기하는 불균형을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

- 브라질은 멕시코와 아르헨티나가 주요 수출상대국이기 때문에 FTA 협상과정에서 EU라는 새로운 시장의 개방이 브라질에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
- MERCOSUR 농업 및 농산업 수출부문은 부분적인 수량제한(MERCOSUR도 일부 상품 쿼터 적용), 탄력관세(할당, 조정), 엄격한 SPS 등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으로 진입 시 일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
- 그러나 유럽의 농업 수출보조금과 엄격한 기술적·위생적 조건은 농업에서 일부 우위 여건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

③ 한국-MERCOSUR 무역협정 협상

● 2004년 한국-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추진 이후 현재까지 협상 진행 중(표 2 참고)

- 공동연구, 무역투자협의회 등 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 한국-MERCOSUR 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며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지 14년 만에 공식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 9월 현재 5차 협상이 진행된 상태

표 2. 한-MERCOSUR TA 추진경과

날짜	협상 추진경과
2004. 11	(대통령 남미 순방)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성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 5. 4~5	한국-MERCOSUR 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아순시온)
2005. 8. 3~4	한국-MERCOSUR 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6. 3. 2~3	한국-MERCOSUR 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2006. 10. 31~11. 1	한국-MERCOSUR TA 공동연구 제4차 회의(브라질리아)
2007. 10. 31	한국-MERCOSUR TA 공동 연구결과 발표회(몬테비데오)
2009. 7. 23	한국-MERCOSUR TA 추진 협의 MOU 체결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협의회 회의 개최 추진
2015. 5	제1차 한국-MERCOSUR 무역투자협의회 개최
2016. 6	제2차 한국-MERCOSUR 무역투자협의회 개최
2016. 11. 21~22	예비협의 개최(부에노스아이레스)
2017. 3. 2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아르헨티나)
2017. 4. 14	한국-MERCOSUR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개최
2017. 12. 6	한국-MERCOSUR TA 추진계획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2018. 5. 25	한국-MERCOSUR TA 협상개시 공식 선언(서울)
2018. 9. 11~15	제1차 협상(몬테비데오): 상품·서비스·무역규범 관련 논의 개시
2019. 4. 2~6	제2차 협상(서울):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권,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등 전 분야 논의 심화
2019. 7. 8~12	제3차 협상(몬테비데오):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권, 원산지, SPS, TBT, 정부조달 등 전 분야 협의 가속화 및 품목별 원산지·통관 첩터 협의 개시 △우리 기업의 대MERCOSUR 주력 수출상품의 시장개방(양허) 협상 본격화
2019. 10. 1~4	제4차 협상(부산):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위생검역(SPS), 정부조달 등 주요 분야별 협상 가속화
2020. 2. 10~14	제5차 협상(몬테비데오):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지적권,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경쟁, 총칙, 협력 등 전 분야 협상 추진

자료: Bown and Tovar(2016).

2) PA 경제통합에 대한 사례 분석

① PA 준회원 협상: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의 경우

- PA는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고 같은 해 6월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협상자로 초청
 - 2017년 10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8년 10월까지 일곱 차례 협상을 진행
 - 그동안 양자 및 다자 협상이 병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2019년 9월부터 전면 양자협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 캐나다는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되는데, 노동권 보호, 성차별 이슈, 환경 등의 분야에서 PA 국가들과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
 - 캐나다는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페루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A 준회원국 협상에 참여

- 싱가포르가 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의 입장에서 PA 준회원국 협상을 한다는 것은 주로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페루와 FTA(2009년)를 맺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페루와는 CPTPP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음.
 - PA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확대된 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게 되었고 싱가포르를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싱가포르는 PA 준회원국 협상대상 4개국 가운데 협상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데, 이는 싱가포르가 가장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노동권 이슈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호주의 입장에서 PA 준회원국 협상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호주산 농·축산물 관세 인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호주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요구 철회, 불법어업 관련 제안 철회 등 호주가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뉴질랜드는 PA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무역촉진을 위한 중남미의 핵심적인 이니셔티브로 인식
 - 우유, 목재, 양(sheep) 관련 제품, 인테리어 제품, 건축 부문 등의 분야에서 PA 국가들과 협력을 기대
 - 반면 누적원산지 제도 도입, 분쟁해결 절차, 노동 등의 분야에서 PA 국가들과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낙농부문을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

② 한국-PA 준회원 협상

-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은 2018년 7월 PA가 '태평양동맹 정상선언문'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을 개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
-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한국은 PA 준회원국 가입으로 인해 멕시코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은 효과
 - 멕시코는 한국의 대중남미 교역 및 투자 1위 대상국이며, 북미시장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국의 북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 또한 준회원 가입으로 인해 한국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체결한 양자 협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존재
 - 칠레, 페루, 콜롬비아가 전자상거래, 환경 등의 부문에서 글로벌 통상규범을 적극 수용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기체결한 3건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고 통상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통된 관심을 확인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보건, 의료, 비대면 사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 역시 제기
-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국가들로부터 화훼, 낙농 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

3) 통합지수를 활용한 MERCOSUR와 PA의 통합 분석

① 역내통합지수 산출

- 역내통합지수는 MERCOSUR 또는 PA 회원국, 즉 역내국가들 간의 통합수준을 나타냄.
- △무역 △역내공급망 △인프라 및 연결성 부분에 대한 MERCOSUR와 PA의 역내통합지수 산출(표 3 참고)

표 3.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활용 지표

부문	활용 지표	출처
I. 무역 (1990~2019년)	I-a. 전체 수출 대비 역내 수출 비율	IMF
	I-b. 전체 수입 대비 역내 수입 비율	IMF
	I-c. 역내 무역 결합도 지표(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IMF
II. RVC (Regional Value Chain) (1993~2018년)	II-a.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보완지표(TCI: trade complementarity index)의 평균값 대비 역내 무역상대국에 대한 TCI 평균값의 비율	UNCTAD
	II-b. 역내 총수출 대비 역내 중간재 수출 비율	UN comtrade
	II-c. 역내 총수입 대비 역내 중간재 수입 비율	UN comtrade
III. 인프라 및 연결성 (connectivity) (1993~2018년)	III-a.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비용의 평균값 대비 역내 무역상대국에 대한 무역비용의 평균값 비율	World Bank
	III-b.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정기선 운송 연결지수(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의 평균값 대비 역내 무역상대국에 대한 정기선 운송 연결지수의 평균값 비율	UNCTAD
	III-c.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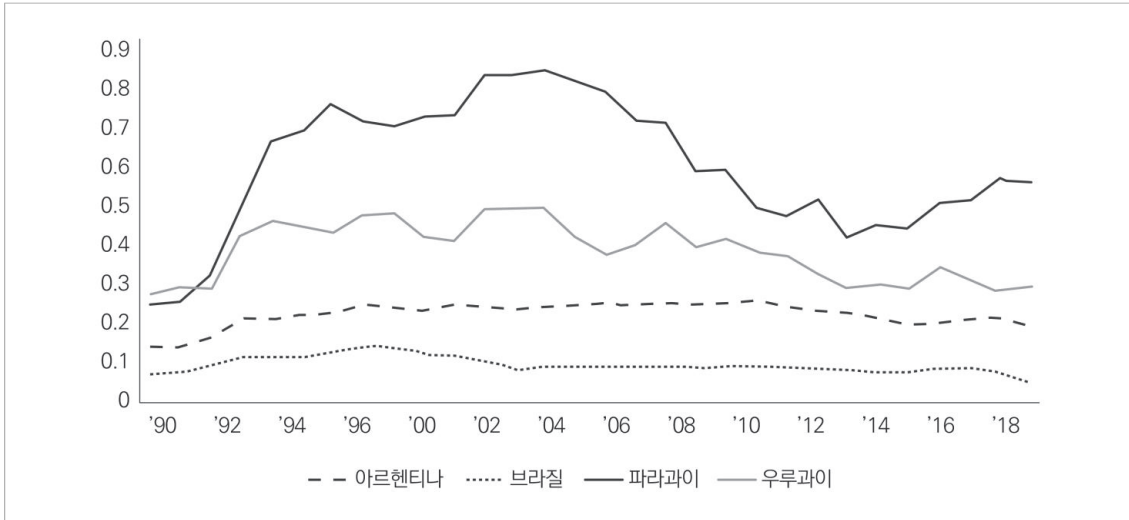
주: 1) Huh and Park(2018)의 표 1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정리하였음.

2) I-c 역내무역 결합도 지표는 (역내 총 무역)/(전 세계 무역) 값 대비 (한 국가의 역내무역)/(한 국가의 총무역) 값의 비율임.

② MERCOSUR 역내통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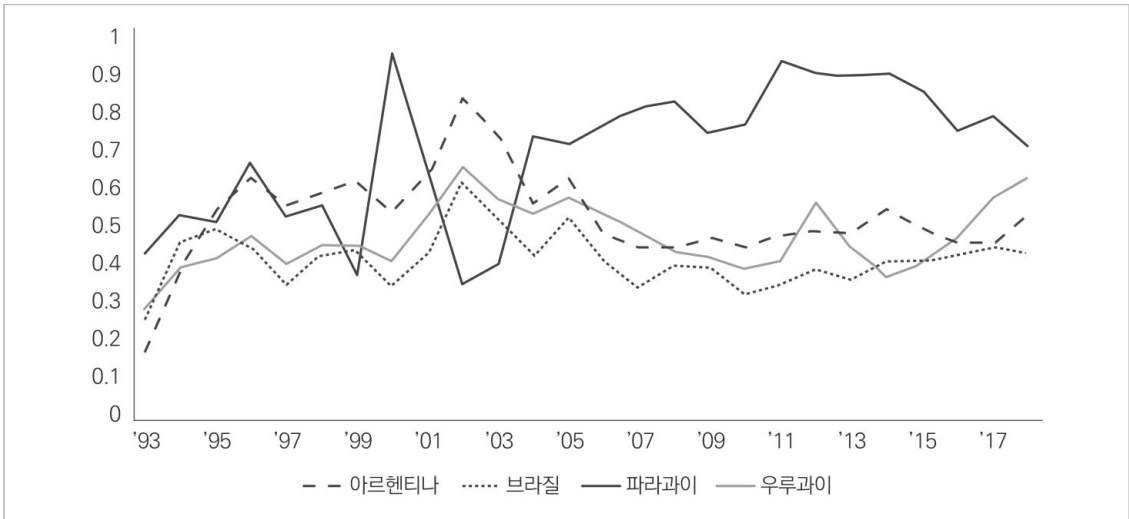
- [무역부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통합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파라과이가 가장 높은 통합지수를 기록(그림 4 참고)
 - 무역부문에서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역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역외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이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임.
 -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무역부문의 역내통합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증남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

그림 4. 무역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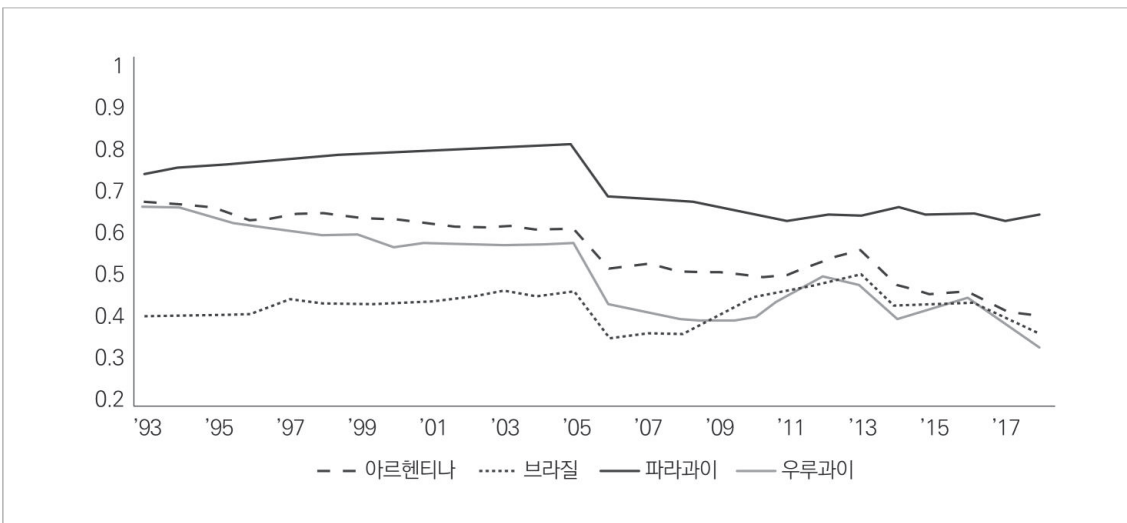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RVC 부문] 브라질은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는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그림 5 참고)
 - 파라과이의 경우 200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다른 역내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수를 기록

- 무역부에서 파라과이의 역내통합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그림 4 참고), RVC 부문에서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파라과이의 역내통합지수는 최근 들어 파라과이의 역내교역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

- [인프라·연결성 부문] 파라과이의 통합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들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그림 6 참고)
 - 이러한 결과는 MERCOSUR의 역내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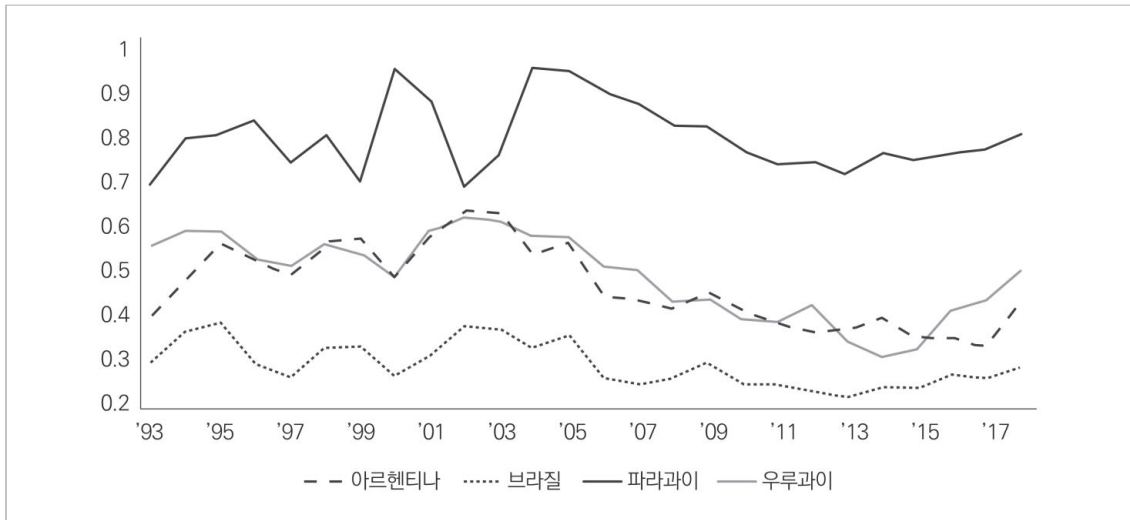
그림 6.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MERCOSUR



자료: 저자 작성.

- [종합지수] 앞서 살펴본 3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에 의하면 파라과이의 종합 역내통합지수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 MERCOSUR 내에서 역내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 반면 브라질은 분석기간 동안 종합 역내통합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역외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7 참고).

그림 7. 종합 역내통합지수: MERCO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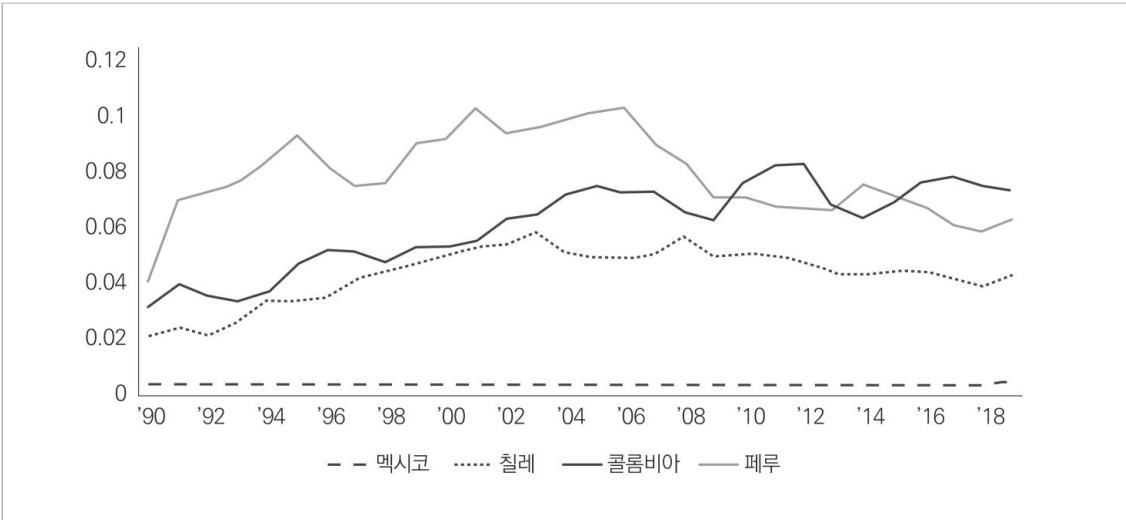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③ PA의 역내통합지수

- [무역부문] 멕시코의 통합지수는 2018년까지 0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동 지수 산출에 사용된 총 35개국 중에서 멕시코가 무역 부문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역내통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그림 8 참고)
 - 2010년까지는 페루의 무역부문 역내통합정도가 PA 내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페루의 역내통합이 감소하고 콜롬비아의 역내통합이 증가하면서 두 국가가 비슷한 수준의 역내통합을 기록
 - MERCOSUR의 역내통합지수와 비교해 보면 PA의 역내통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PA 출범 이후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회원국들의 미국 및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가 낮은 수준의 역내통합지수를 야기했을 개연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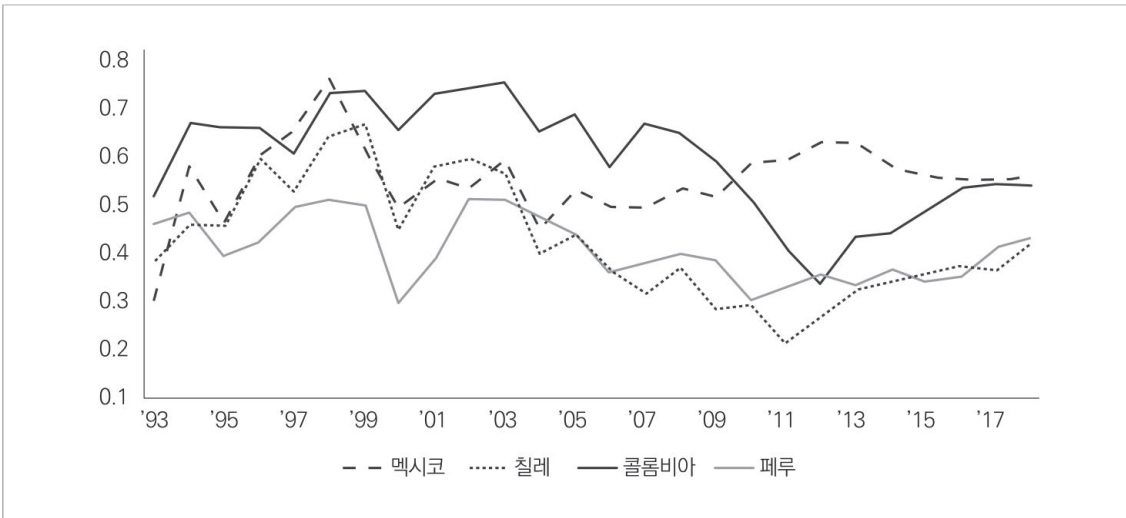
그림 8. 무역부문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 [RVC 부문] 칠레, 콜롬비아, 페루는 2000년대 들어 RVC 부문의 역내통합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부터 반등하여 증가 추세로 전환(그림 9 참고)
 - 멕시코는 2000년대 들어서 역내통합지수가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RVC 부문 역내통합수준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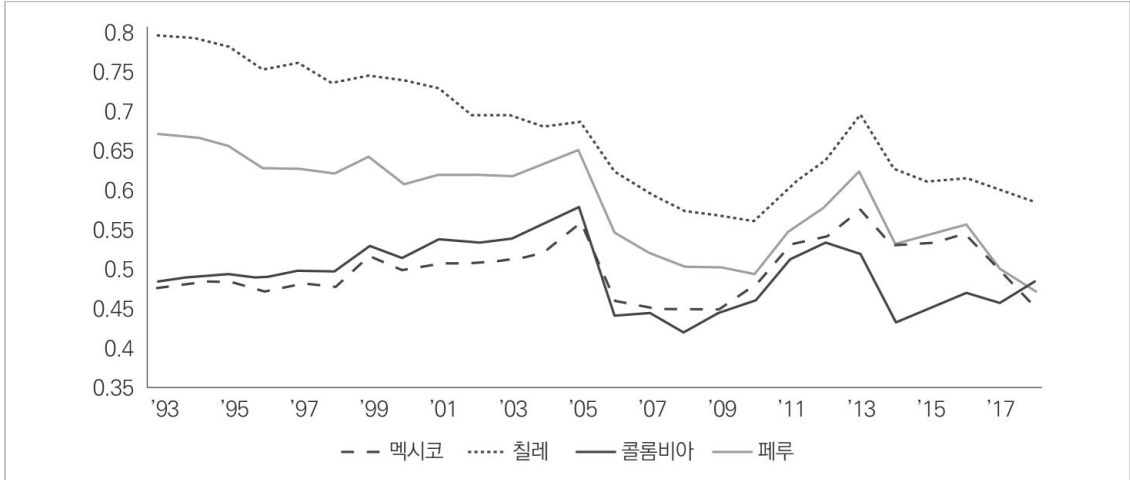
그림 9.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 [인프라·연결성 부문] 칠레는 역내 연결성 부문에서 PA 정회원국 중에서 통합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콜롬비아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의 역내통합지수 변화는 비슷한 추세를 기록(그림 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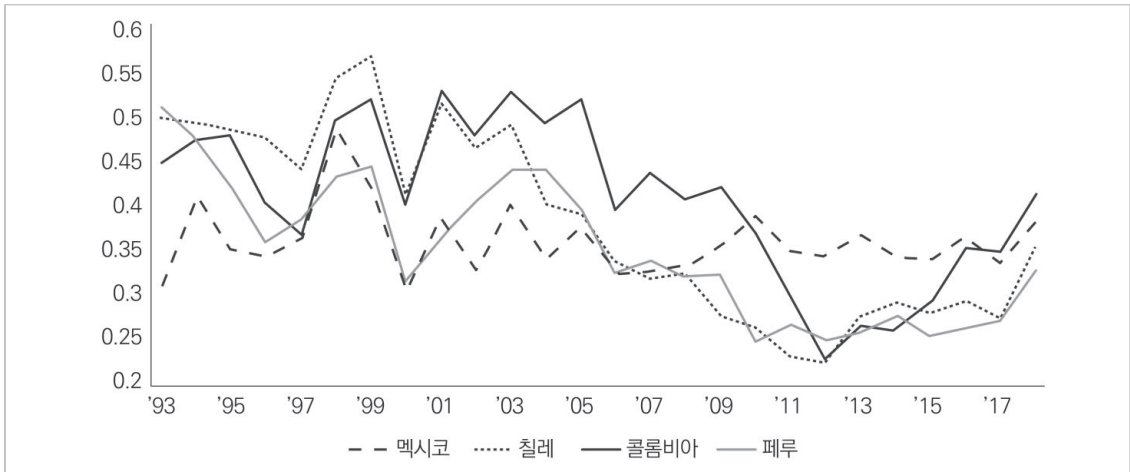
그림 10.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 [종합지수] 칠레, 콜롬비아, 페루의 역내통합지수는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수준을 보였으나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면서 멕시코보다 낮은 역내통합수준을 기록(그림 11 참고)
 - 하지만 2012년부터 역내통합지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멕시코와 비슷한 통합수준 유지

그림 11. 종합 역내통합지수: PA



자료: 저자 작성.

④ 역내통합의 결정요인

● 앞서 도출한 EU, MERCOSUR, PA에 대한 종합 역내통합지수와 여러 설명변수를 고려하여 역내통합의 결정요인을 분석

-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며 다음의 회귀식을 OLS로 추정

$$Y_{ct} = \alpha_0 + \beta_1 Eco_{ct-1} + \beta_2 Pol_{ct-1} + \beta_3 Mer_c + \beta_4 PA_{ct} + \beta_5 Mer_c \times Eco_{ct-1} + \beta_6 Mer_c \times Pol_{ct-1} + \beta_7 PA_{ct} \times Eco_{ct-1} + \beta_8 PA_{ct} \times Pol_{ct-1} + k_t + \epsilon_{ct} \quad (1)$$

- Y_{ct} : 국가 c의 해당연도 t에서의 전체 역내통합지수
- Eco_{ct-1} , Pol_{ct-1} : 국가 c의 t-1기에서 관측한 경제와 정치·제도 관련 지수를 나타내는 변수
- Mer_c : MERCOSUR 국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PA_{ct} : PA 국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PA 출범 연도인 2012년 이후는 1,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을 가짐.
- $Mer_c \times Eco_{ct-1}$, $Mer_c \times Pol_{ct-1}$: MERCOSUR 더미변수와 t-1기의 경제, 정치 관련 변수와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
- $PA_{ct} \times Eco_{ct-1}$, $PA_{ct} \times Pol_{ct-1}$: PA 더미변수와 t-1기의 경제, 정치 관련 변수와의 상호관계항
- k_t : 시간 고정효과
- ϵ_{ct} : 오차항
- 식 (1)을 추정하기 위해서 EU, PA, MERCOSUR로 구성된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
- 식 (1)을 추정함에 있어 EU 국가들의 역내통합지수를 활용하는 것은 MERCOSUR와 PA 국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설명변수의 개수에 비해 관측치 수가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
- 제도 변수(Pol_{ct-1})는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에서 제공하는 통합된 제도 지표를 사용
 - ICRG 제도 지표는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제도의 질(quality)을 지수화한 것으로 총 12개의 세부지수로 구성

- 분석결과 Eco_index 로 대변되는 경제환경지수는 PA의 경우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PA의 경우 경제상황이 호전될수록 상대적 역내통합은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 ($PA \times L.Eco_index$ 항목, 표 4 참고)
- 정치·제도가 역내통합에 미치는 영향은 MERCOSUR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데, 전반적 정치·제도 환경이 좋아질수록 상대적 역내통합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MER \times L.Pol_index$ 항목, 표 4 참고).²⁾

- MERCOSUR의 경우에는 정치·제도 지수의 향상이 전체 교역 대비 살펴본 상대적 역내통합은 저해했음을 알 수 있음.

표 4. 통합지수 산출을 위한 활용 지표

	(1) 전체통합지수	(2) 전체통합지수(Log)
L.Eco_index	0.001 (0.001)	0.003 (0.003)
L.Pol_index	-0.000 (0.001)	-0.001 (0.001)
PA	-0.134*** (0.012)	-0.311*** (0.029)
MER	0.748*** (0.253)	0.956* (0.504)
PA×L.Eco_index	-0.004 (0.003)	-0.016** (0.008)
MER×L.Eco_index	0.006 (0.005)	0.010 (0.010)
PA×L.Pol_index	0.001 (0.001)	0.005 (0.004)
MER×L.Pol_index	-0.014*** (0.003)	-0.021*** (0.007)
연도 고정효과	○	○
관측치 수	831	831
R ²	0.300	0.330

주: 1) L.는 t-1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출범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MER는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3)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4) ()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5)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⑤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입장에서 궁극적인 관심사는 MERCOSUR와 PA의 역외통합이므로 본 절에서는 역내통합이 역외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역외통합 지표로 역외국가들과의 교역액을 사용하며 아래의 회귀식을 추정

$$Y_{ct} = \alpha_0 + \beta_1 var_{ct-1} + \beta_2 Mer_c + \beta_3 PA_{ct} + \beta_4 Mer_c \times var_{ct-1} + \beta_5 PA_{ct} \times var_{ct-1} + \beta_6 Eco_{ct-1} + \beta_7 Pol_{ct-1} + k_t + \epsilon_{ct} \quad (2)$$

- Y_{ct} : 국가 c의 해당연도 t에서 역외수출액, 역외수입액, 또는 역외총교역액

2) 본 역내통합지수는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분석 변수들이 절대적 역내통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결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정치, 제도적 여건이 호전될수록 역내교역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내교역 증진 정도가 역외교역의 증진 정도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 var_{ct-1} : 국가 c의 t-1기에서 관측한 전체 역내통합지수, 무역부문 역내통합지수, RVC 부문 역내통합지수, 인프라 및 연결성 부문 역내통합지수
- Mer_c : MERCOSUR 국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PA_c : PA 국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PA 출범연도인 2012년 이후는 1,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을 가짐.
- $Mer_c \times var_{ct-1}$: var_{ct-1} 과 MERCOSUR 더미변수의 상호관계항
- $PA_c \times var_{ct-1}$: var_{ct-1} 과 PA 더미변수의 상호관계항
- Eco_{ct-1} , Pol_{ct-1} : 국가 c의 t-1기에서 관측한 경제와 정치 관련 지수를 나타내는 변수
- k_t : 시간 고정효과
- ϵ_{ct} : 오차항

- 분석결과 경제 및 정치·제도 환경의 개선은 역외교역액을 증진시켜 역외통합에 있어 해당 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줌(표 5 참고).
 - 해당 효과는 역외 수출입 모두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남.

표 5. 역외통합과 역내통합

	(1) 역외수출액(Log)	(2) 역외수입액(Log)	(3) 역외총교역액(Log)
L.Log(전체 역내통합지수)	1.942*** (0.326)	1.898*** (0.326)	1.909*** (0.323)
Log(Eco_index)	2.922*** (0.500)	2.328*** (0.465)	2.609*** (0.474)
Log(Pol_index)	3.473*** (0.610)	2.485*** (0.598)	2.966*** (0.596)
PA	2.085*** (0.231)	1.648*** (0.226)	1.834*** (0.227)
MER	-3.382*** (0.323)	-3.252*** (0.308)	-3.261*** (0.309)
PA×L.Log(역내통합지수)	-0.493** (0.214)	-0.702*** (0.217)	-0.607*** (0.215)
MER×L.Log(역내통합지수)	-5.168*** (0.394)	-4.666*** (0.382)	-4.844*** (0.382)
연도 고정효과	○	○	○
관측치 수	808	808	808
R ²	0.382	0.314	0.348

주: 1) L.는 t-1시점의 각 변수의 값을 의미함. 2) PA는 PA 출범연도인 2012년 이전에는 0의 값, 그 이후에는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며, MER는 MERCOSUR 회원국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임. 3) 변수명에서 ×가 의미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호관계항(interaction term)을 의미함. 4) () 안의 값은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임. 5) *, **, ***은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3. 정책 제언

1) 한국-MERCOSUR 무역협정 협상 전략

- 현재 비준 단계인 EU-MERCOSUR FTA가 발효될 경우 MERCOSUR 시장에서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TA 협상을 신속히 타결할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디지털적 요소를 포함하는 가칭 'Korea-MERCOSUR Tech-Trade Agreement'를 지향할 필요
 - 한국-MERCOSUR 간 TA 협상은 4차 산업혁명의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타결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MERCOSUR 측에서는 이번 한국과의 TA를 통해 기술협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
 -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양자간 TA가 자칫 농업과 제조업의 교환이라는 협소하고 이분법적인 협상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 또한 MERCOSUR 현지에서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할 필요
 - 현지 유력경제단체 혹은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과 TA 협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홍보

2) 한국-PA 무역협정 협상 전략

- 한국도 호주, 뉴질랜드와 PA 국가의 협상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PA 국가들로부터 화훼, 낙농제품 등의 수입도 함께 늘어나 국내 해당 산업부문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상존
- PA 국가들의 디지털화 논의에 기반을 둔 전략을 마련할 필요
 - PA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를 PA 준회원국 23개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으며, 무역부문에서도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노력
 - 또한 한국과 PA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 등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인한 바 있음.

3) 통합지수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 PA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역내시장 공략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로의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
 - RVC 부문 PA의 역내통합 개선이 역외통합까지 이어진다는 분석결과는 이러한 시사점을 뒷받침
 - 즉 PA의 역내 공급망이 미국, 캐나다 등 USMCA 국가들까지 이어질 경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PA 진출로 인해 더욱 큰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PA 준회원 가입 역시 중요해지는 상황
- 한편 MERCOSUR의 경우 역내통합 증진이 오히려 역외교역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하면 역외진출을 염두에 둔 MERCOSUR 진출은 지양할 필요
 - MERCOSUR에 진출할 경우 역내시장 공략을 주안점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역내시장만을 염두에 둘 경우 그리고 MERCOSUR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과 MERCOSUR 무역협정과 한국-브라질 양자간 무역협정의 차이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
 - 특히 MERCOSUR 회원국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 자체가 지연될 경우 한-브라질 양자간 협정 가능성 모색도 필요 **KIEP**